

202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부단 전체 및 제책표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②	5	④
6	④	7	⑤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②	14	①	15	④
16	⑤	17	③	18	②	19	①	20	④
21	①	22	①	23	②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②	29	③	30	⑤
31	②	32	④	33	⑤	34	②	35	④
36	②	37	③	38	③	39	⑤	40	④
41	③	42	⑤	43	①	44	③	45	④

해설

** 화법 **

1. [출제외도] 발표 표현 전략 사용

발표자는 1문단의 ‘여러분은 혹시 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와 2문단의 ‘면약 용기에 문양이 보이시죠?’라는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화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만,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 [출제외도]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

3문단에 싼과 잠곡 가루를 섞어서 백분을 제조했다는 설명은 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백분의 제조 과정이 달라졌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자료 1]을 제시하여 화장품 용기에 화채 문양을 그려 넣은 이유가 용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③ [자료 2]를 제시하여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쓰였던 분점시와 분점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⑤ [자료 3]을 제시하여 ‘심미요’ 가운데 가장 선호했던 가늘고 동그렇게 휘어진 형태의 눈썹 모양을 보여 주었다.

3. [출제외도] 발표 내용 이해, 평가

‘학생 2’는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불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했다’는 ‘학생 1’의 말을 듣고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면 혼례식에서 신부의 얼굴이 더 돋보였’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지는 않다.

① ‘학생 1’은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불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발표를 들은 후 조선 시대에 눈썹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맞는지 ‘학생 1’에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심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을 찾아볼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과 ‘학생 2’ 모두 심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없었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화법 · 작문 **

4. [출제외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

동아리 체험 활동이 진행된 ‘수생 식물원, 기후 체험관, ○○늪 습지’를 이동 순서에 따라 제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아리 체험 활동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외도] 대화 내용 이해, 평가

㉔은 기사문의 내용적 측면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기사문의 형식적 특징을 언급하며 기사문이 지닌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① ㉔은 ‘기사문을 처음 써 보니’에서 기사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족한 점이 ~ 부닥해도 될까?’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② ㉔은 ‘현재의 표제만으로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과 ‘행사의 의미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③ ㉔은 기사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인 육하원칙을 고려하여 전문에 활동 목적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㉔은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가 제한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6. [출제외도] 대화 내용 조직

[A]에서 ‘학생 2’는 활동 장소를 추가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B]에서 ‘학생 3’은 캠페인 활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자는 제안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7. [출제외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

(나)에서 ‘학생 1’은 캠페인 활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본문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나 수정된 문장인 ‘또한 ‘초록누리’ ~ 바란다고 전했다.’에는 캠페인 활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캠페인 활동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동아리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행사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표제를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활동 목적과 동아리 체험 활동 장소를 추가하여 전문을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생태원 안에서 진행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추가하여 전문을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장인 ‘○○생태원에서는 이달의 ~ 잡지를 발행했다.’를 삭제하여 전문을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 작문 **

8. [출제외도] 건의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

2문단에 글쓴이와 글쓴이의 친구가 직접 경험한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의 사례를 통해 버스 정류장의 안전사고가 심각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9. [출제외도] 건의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

ㄴ에서는 정제식에 설치되는 미끄럼 방지 시트에 주정차 금지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ㄷ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트를 통해 교통 표지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게 버스 정류장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ㄴ, ㄷ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③ ㄷ은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구민 인터뷰 자료이다. ‘버스를 타기 ~ 마음이 듭니다.’라는 ◇◇구민의 말을 통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구

민들이 버스에 탈 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의 필요성으로 5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외도] 건의 글쓰기 내용 생성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면’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건의 내용을 밝힌 부분이고, ‘◇◇구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건의가 수용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 문법 **

11. [출제외도]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㉔에는 홀문장 또는 안건문장을 가지지 않은 이어건문장이, ㉔에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제외한 안은문장이, ㉔에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들어간다. ㄱ은 ‘동생이 돌아왔다’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ㄴ은 ‘열집에 사는’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ㄴ은 홀문장이며 ㄷ은 ‘마음 씩씩이가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2. [출제외도] 표준 발음법

‘이웃에게’를 발음할 때, [이우테게]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웃’의 ‘ㅅ’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ㄷ]으로 교체한 후 표준 발음법 제13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웃에게’는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라 [이우세게]로 발음해야 한다.

① ‘말이’에 [마디]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표준 발음법 제13항만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말이’는 구개음화를 적용해 [마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안팎’에 [안파갈]이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안팎’의 ‘ㄱ’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ㄱ]으로 교체한 후 표준 발음법 제13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안팎’은 표준 발음법 제13항만을 적용해 [안파갈]로 발음해야 한다. ③ ‘숯’에 [수탈]이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숯’의 ‘ㅅ’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ㄷ]으로 교체한 후 표준 발음법 제13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숯’은 표준 발음법 제13항만을 적용해 [수탈]로 발음해야 한다. ④ ‘술이’에 [수티]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표준 발음법 제13항만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술이’는 구개음화를 적용해 [수치]로 발음해야 한다.

13. [출제외도] 접받침의 발음

[A]에 언급된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접받침 ‘ㄹ’은 ‘ㄱ’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따다’ [따따]로 발음해야 한다.

①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접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넋다’ [넋따]로 발음해야 한다. ③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ㄱ]로 발음해야 하므로 ‘묻고’는 [물꼬]로 발음해야 한다. ④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고,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묻이’는 [묵씨]로 발음해야 한다. ⑤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여덟이’는 [여덜비]로 발음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합성어의 형성

㉠과 ㉡에 쓰인 '건너뛰다'는 각각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뛰다.', '차레를 거치지 않고 건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모두 합성 동사이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문법

ㄴ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술-'은 '夫人(부인)'이 아니라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에서는 주체인 '文殊(문수)'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에서는 객체인 '摩耶(마야)'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의'와 선어말 어미 '-술-'이 사용되었다. ㉢에서는 객체인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서'가 사용되었다. ㉤에서는 주체인 '耶輸(야수)'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 인문 ***

□ 출전 :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토마스 셉케, 「사물의 통치-푸코와 신유물론」

16.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가)는 푸코가 생각한 권력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후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의 작동과 16세기 이후 규율 권력의 등장, 그리고 17세기 이후 생명 권력이 규율 권력과 함께 작동하는 양상에 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신유물론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① (가)에 푸코가 제시한 권력의 개념은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의 라투르와 해러웨이는 모두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므로 학자들 간의 논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나)의 2문단에서 라투르는 인류세를 통찰하여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일으켰다고 했으므로 생태 위기가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가)의 2문단에서 군주의 반발을 일으킨다는 한계로 인해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푸코는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라투르는 비인간과 인간 모두를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 낸 수평적 연결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해러웨이는 반러중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가 인류세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18. [출제의도]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가)의 4문단에서 푸코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도 사실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가)의 4문단에서 근대 이후의 권력의 작동은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형태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③ (가)의 4문단에서 개인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가)의 4문단에서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는 것은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

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것은 자신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규율의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가)의 3문단에서 푸코는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며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의 3문단에서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이라고 칭하며,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푸코의 생명 권력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조절과 통제에 관한 것이므로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3문단에서 해러웨이는 실험동물에 가해지는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3문단에서 푸코는 산업 혁명이라는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명 권력이 산업 혁명의 경제적 변화를 조래하게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와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을 주장한 해러웨이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을 통제하여 반려종과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나)의 2문단에서 제시된 라투르의 관점은 비인간을 인간과 동등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로 보고,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것은 라투르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가)의 3문단에서 국가 권력이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 질병이라는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대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조류 독감을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역시,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라는 위험 요소로 조류 독감을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3문단에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질병을 직접 관리하는 권력의 작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예방 법령에 따라 조류 독감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상황 역시 질병을 직접 관리하는 국가 권력의 작동에 해당한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들의 행위성이 만들어 낸 수평적 연결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조류 독감 확산의 문제도 인간, 동물, 미생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의 의미로, '그 결정으로 인해 회사를 혼란에 빠졌다.'의 '빠지다'의 의미와 유사하다.

*** 과학, 기술 ***

□ 출전 : 서주원, 「에너지 절감 기술 총망」

22.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2문단에서 '의류 건조기는 가열 장치를 통해 공기를 일정한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기를 드럼 내에서 가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7문단에서 '이렇듯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면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보다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7문단에서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에 비해 더 많은 수축이 생기는 편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드럼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 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하면 '건조기 작동을 마치고도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2문단을 통해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기체로 변하는 상변화는 의류 건조기의 드럼 안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류 건조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배기식 건조기와 응축식 건조기 모두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거쳐 기체 상태로 바뀐 후 드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④ 6문단에서 배기식 건조기는 수증기가 '실외로 이어지는 별도의 배기 장치를 통해 배출'되고, 응축식 건조기는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어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응축식 건조기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열 교환기로 이동하여 냉각'되고, '공기의 습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응축식 건조기에서는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고,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1문단을 통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전달에 의해 물 분자들의 결합력이 약해져 기체로의 상변화, 즉 증발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고 2문단을 통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수분 증발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 분자들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수분 증발이 촉진된다는 것은 ㉡의 이유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 따르면 물에서 수증기로의 상변화가 촉진된다는 것은 공기에서 물체로의 열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상변화가 촉진되어 열전달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인과가 바뀐 설명이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물체에서 공기로의 열전달이 아닌, 공기에서 물체로 열전달이 일어나야 건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므로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수분 증발이 촉진되는 것이므로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증발이 활발해진다는 설명은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의류 건조기에서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세탁물의 함수율은 점차 감소하는데, <보기>의 그래프에서 세탁물의 함수율은 C 구간에서 가장 높고 A 구간으로 갈수록 낮아지므로 C가 예열 구간, B가 향를 건조 구간, A가 감를 건조 구간이다. 3문단에 따르면 예열 구간은 '고온의 공기에 의해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다. 따라서 C 구간에서 세탁물의 수분 증발에 쓰이는 열에너지는 점차 증가한다.

① <보기>를 보면 A 구간에서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은 건조 속도가 0임을 알 수 있고, 5문단에서 '주어진 건조 조건에서 최대한 증발될 수 있는 수분이 모두 증발되면 건조 속도가 0이 되어, 더 이상 건조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향를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

단에 따르면 '건조가 진행되면서 세탁물의 함수율이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항물 건조 구간에서는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1문단에 따르면 이는 건조 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이므로 B 구간에서 세탁물의 함수율은 계속 감소하지만 단위 시간당 세탁물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3문단을 통해 예열 구간은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고, 4문단을 통해 항물 건조 구간에서는 예열 구간에서 상승된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통해 감열 건조 구간에서는 건조 속도가 0이 되면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A 구간에서 세탁물의 온도는 B 구간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구간에서의 세탁물의 평균 온도가 A 구간에서 가장 높고, C 구간에서 가장 낮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를 지닌 '발생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오정희, 『겨울 뚝부기』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오빠는 용산 야채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돈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야채 시장에서 서너 시간만 일해도 남들 하루 종일 일하는 몇 배를 번다고 말했다.

2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에서 연결 어미와 부사를 연이어 '~지만 그러나 또한'을 사용한 것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견에 동의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오빠가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① 3수에 들어간 오빠가 '밤늦게 술내를 뚝기며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는 서술자가 경험한 사실이고, '학원보다 당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는 것은 오빠에 대해 서술자가 집착한 내용이다. 이렇게 서술자가 경험한 사실과 집착한 내용은 오빠가 '별반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③ 관용적 표현인 '설 새 없이 눈을 굴리며'와 비유적 표현인 '누겨푹은 마파람에 떠는 문풍지처럼'은 안간힘을 다해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오빠가 초조한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자가 판단한 근거라 할 수 있다. ④ 서술자는 자신이 보낼 돈과 관련해 오빠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달아났을지도 모른다면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금반지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지닌 패물로, 죽을 때까지 끼고 있다가 마지막 저승 갈 노자로 남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금반지를 오빠에게 내어주며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금반지는 오빠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경제적 한계를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오빠가 '왕창 망해 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릴 적 오빠에게 보았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다. 따라서 '나'는 오빠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빠가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① 오빠가 입시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는 '과거 운이 없어'서, '나'는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인 오빠가 '일류 학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오빠가 입시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와 '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꿈을 지녔던 오빠가 '오정어잡이 배'의 '어부가 되어' 현실적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서 오빠가 예전에 지니고 있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어머니는 오빠가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약학 대학' 들어갈 실력이 있다는 믿음을 드러냈지만,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는 오빠에게는 '숙제 돌아앉아서 차갑게 오빠의 말을 자르며'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사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빠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머니는 사람마다 분수가 있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오빠가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오빠는 '나'에게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든 허전하고 쓸쓸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오빠가 삶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영이록』

3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소운성은 '화답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손기에게 자신의 시에 화답할 것을 요구하지만, 손기는 시를 짓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운성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소운성은 손기가 시를 짓지 않자 기녀들에게 '반신을 잡아 얼굴에 먹칠하도록' 명할 뿐, 손기에게 직접 기녀들을 발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④ 소운성이 자신의 시에 화답할 것을 권하자 형 한림과 세 동생은 '차레로 글을 지어 읽'었을 뿐, 손기에게 강물을 먹일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손기에게 강물을 먹이라고 명령한 것은 소운성이다.

32.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에서는 '어찌 손 선생은 그대로 계시니 우리들의 즐거움을 돌지 않으시는지요?'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손기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하려는 자신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① ㉠에서는 '세 먹'은 예절이나 '시' 짓는 예와 같은 사회적 관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함은 아니다. ② ㉠에서는 '반 번 손을 잡은 관계가 아니라 백년 인연'이라며 반선과 손기의 인연을 강조하여 반선에게 자신의 명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을 뿐, 우월한 지위를 언급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는 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추측을 활용하여 눈물을 흘리는 손기를 조롱하고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는 '조나라의 인상여'에 관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자가 고사 속 인물의 행위를 본받아 상대가 괴리를 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지 상대가 고사 속 인물의 행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언하기 위함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에서 소운성의 제안에 따라 시를 짓던 형 한림이 [나]에서 '어찌 구태여 사람마다 다 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손기에게 악기 연주를 강요하는 소운성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 한림이 [가]에서는 주인공과 대립 인물의 갈등을 방관하지만 [나]에서는 주인공과 대립 인물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 한림이 주인공인 손기의 요청에 따라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아니다.

① 소운성은 [가]에서는 손기에게 '뛰어난 시로 답'할 것을 강요하고, [나]에서는 손기에게 '괴리를 드리니 한번 불어 주시기 바'라라고 말하며 괴리를 불기를 강요한다. 이는 소운성이 손기를 곤경에 빠트리려는 것으로, 주인공과 대립 인물이 갈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④ [가]에서 소운성에게 수모를 당하는 손기의 모습을 보며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포복절도'하는 것으로 보아, 손기는 주변 인물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나]에서 손기가 악기를 연주하며 도술을 부리자 소운성이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형씨 집안의 형제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과 '형 한림은 손기의 신기한 조화와 재주에 감탄'했다는 것으로 보아, 손기는 주변 인물들에게 두려움과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인공 손기에 대한 주변 인물의 평가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사회 ***

□ 출전: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A]를 보면 과태료는 '경미한 형사 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한다고 하였고,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미한 형사 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사범 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행정청이 아닌 사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③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다. ④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이 아닌 과태료이다. ⑤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1문단에서 과징금은 '위반 행위자가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모두에 대해 위반 행위자가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행정청은 영업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 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은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의 물수·추징 제도'와 결합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 물수·추징 제도가 지닌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과징금은 '침익적 행정 행위로 인해 법률 효력의 원칙에 따라 '행정 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되며,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익적 행정 행위의 남용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경된 과징금은 모두 침익적 행정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강력한 제재 수단인 영업 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견해는 ㉔가 아닌 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서만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① 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반 행위자가 어떤 처분을 선택해도 제재 효과가 동일하므로 위반 행위자에게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에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익성이 약한 영업 분야에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확대하여 처분하면 강력한 제재 수단인 영업 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가 감소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㉔와 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선택할 수 없는 위반 행위자나 공익적 성격이 적어 영업 정지를 처분받은 위반 행위자 모두가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했을 때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위반 행위자에게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에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를 보면, 행정청에서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하여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를 보면, 약사법 규정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기>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1억 원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를 보면, 과징금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기>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고 하였고, <보기>를 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여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기>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A 약국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의료, 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기>를 보면, A 약국은 의료 분야의 영업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보기>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A 약국의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유가 A 약국의 영업이 공공의 편익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이상수, 「금강별곡」 (나) 채제공, 「회통사판곡기」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㉔에서는 ‘눈으로 둘러보니’, ‘손으로 가리키니’, ‘입으로 말을 한즉’과 같은 행위들을 나열하며 화자가 감상한 풍경의 다양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서책’, ‘뒤주’, ‘함둥’, ‘갯’, ‘우산’ 등의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물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일한 대상이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막다른 길로 인해 원했던 장소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분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 추박한 일정으로 인해 원하는 풍경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보고 싶었던 장소를 찾아가지 못했으므로, 찾고자 했던 장소의 풍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글쓴이는 폭포의 물방울이 쏘아 대는 기세 때문에 폭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결눈질로만 멀리 폭포를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글쓴이는 거세게 흐르지 않는 원류를 건넌 후 폭포를 긴 채 암석 위에 앉아 폭포를 굽어보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폭포의 원류를 건넌 후에야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폭포의 경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흥 씨의 장원에서 임시로 지낸 이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큰비가 내린 이후에 폭포의 물줄기가 매우 장관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폭포를 구경하러 가는 도중에 덩굴을 헤쳐다 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폭포의 물방울이 쏘아 대는 기세 때문에 폭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결눈질로만 멀리 폭포를 바라보며 마치 버리고 가는 듯 훌쩍 산을 올라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 감상

[B]에서는 글쓴이가 ‘백담’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길 원치 않는 자는 남아 있게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글쓴이의 일행이 ‘백담’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① [A]에서는 화자가 얼음을 건너고, 밥을 지은 후 복장을 정비하여 돌들을 건너가며 ‘백담’을 찾아가기 위해 산을 오르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글쓴이가 물을 건너고, 따르는 사람에게 밥을 짓게 한 후 복장을 정비하여 끝까지 물을 따라 돌을 밟으며 ‘백담’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② [A]에서는 ‘겨울 눈’, ‘얼음’과 같이 겨울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얼음’이라는 겨울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③ [B]는 ‘관관 소리를 내며’에서 청각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하여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A]에는 청각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채삼꾼과 사냥꾼, 허기진 사람과 밧길 잃은 사람의 처지에 비유하며 ‘백담’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B]는 포정이 소를 잡을 때의 섬세함에 비유하여 ‘백담’을 찾아가는 길의 위험함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4 27

(가)의 화자는 조물주가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여 돌 하나를 조각한 것 같다고 말하며 ‘미륵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㉔에는 현재 바라보는 ‘미륵봉’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경이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폭포가 물의 본성을 잃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폭포를 보며 박수를 치고 탄성을 지르는 것에 대해 ‘미혹’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㉕에는 ‘폭포’의 현재 모습에만 주목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화자가 ‘백담이라 하는 것이 듣던 것과 다르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백담’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 접한 풍경을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성질에 대해 생각하며 폭포가 이러한 물의 성질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뿐, 아래로 흐르는 것이 폭포의 특성이란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① 금강산을 찾기 전까지 금강산에 관한 소문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의 화자는 직접 금강산을 본 후, 말이나 글로 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의 체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한 것에 해당한다. ② (나)의 글쓴이는 폭포가 물의 본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한 후, 사람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연물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 것에 해당한다.

** 현대시 **

□ 출전: (가) 조지훈, 「향문」 (나) 박성우, 「두꺼비」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옛날’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수수하고 소박했던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두꺼비’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을 강조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비교와 대조

㉔은 성터를 거닐다 주위 온 절그릇을 고이 닦아 두 불에 대어 본다는 점에서 화자가 절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㉕은 평소에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두꺼비’를 살짝 만져 본다는 점에서 ‘두꺼비’를 더 알고 싶어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㉕은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화자가 맛따르리게 될 현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행위는 아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두꺼비’의 ‘독’으로 인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만지며 느낀 서러움과 안쓰러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 부채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다.

① (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무르녹는 옛 향기’는 ‘개진 절그릇’에서 유발된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길항아리’에서 발견한 ‘구름무늬’를 통해 ‘자애’로운 ‘그 옛날 할아버지 원수업’을 연상하고 있다. ③ (나)에서 늦은 밤에 ‘되근’하고 새벽에 ‘딱일판으로 나가셨’던 ‘아버지 양 손엔 우물두툼한 두꺼비가 살았었다’는 것은 시간 표지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을 형상화한 것에 해당한다.